

경영저널

하나되는 대구·경북,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언론



COVER STORY / 권영택 영양군수

정책조명 / 농어촌버스 요금제 단일요금제 전환 필요

포커스 리딩 / 유럽재정위기 장기화 비판론 대두

핫이슈 영양 / 영양, 청정에너지 산업 메카 자리매김

전문가 기고 / 에너지 절약, 이젠 선택 아닌 필수

문화의 고장 영양 / 조지훈 시인의 고향 주실마을

지자체는지금 / 대구 기초의회 5곳 의정비 인상

멤버십 회원사 증인 / 일식 전문점 금강회초밥, 성형클리닉 미디어트



»» Photo Essay 일월산 첫눈

글·이한나 기자

동장군이 기세등등하더니
온 세상이 하얀 설국(雪國)으로 변했다.
하늘과 맞닿은 곳
영양 일월산에 첫 눈이 내렸다.
첫 사랑, 첫 출근, 첫 수업 등등...
처음은 이렇게 늘 설레임으로 다가온다.
일월산 정상 일자봉에 펼쳐진 첫 눈꽃도 그렇다.



사진제공/영양군청

경영저널 www.경영저널.com 통권 제29호

발행인·대표이사 이진구 | 편집인 서기대 | 등록번호 대구라07691 | 창간 2007년 11월 5일 | 편집위원 윤일형, 정성민, 장승욱 | 취재기자 홍순대, 이종수, 이광희, 이동현, 박홍우, 박영진

편집 이한나 | 사진 김기환 |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TEL 053)766-1368 | FAX 053)766-1356

인쇄 삼영정밀인쇄사 | 가격 5,000원

C

Contents

- 02 _ Photo essay / 일월산 찾는
- 04 _ News wide / 농림수산물부 내년 예산 15조4천106억원 편성
- 06 _ Economic trend / 기름값 요동 서민경제 먹구름
- 08 _ Cover story / 권영택 영양군수
- 12 _ 정책조명 / 농어촌버스 요금제 단일요금제 전환 필요
- 14 _ Focus reading / 유럽재정위기 장기화 비관론 대두
- 18 _ 법령해설 /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적용
- 20 _ 투게더 피플 / '건이강이봉사단' 대구경북 대표 봉사단체 자리매김
- 21 _ 장바구니 물가 / 갈치 등 주요 수산물 가격 강세 지속
- 22 _ 핫이슈 yeongyang / 영양, 청정에너지 산업 메카 자리매김
- 24 _ yeongyang 특산품 / "전국 최고 영양고추 맛보세요"
- 26 _ 전문가 기고 / 에너지 절약, 아젠 선택 아닌 필수
- 27 _ Travel sketch / 영양 석보 두들마을
- 28 _ 문향의 고장 yeongyang / 조지훈 시인의 고향 주실마을
- 30 _ Life style / 유통가 에코마케팅 활발
- 32 _ 지자체는 지금 / 대구 기초의회 5곳 의정비 인상
- 33 _ 멤버십 회원사 줄인 / 금강화초밥·메디아트
- 34 _ 통계로 보는 대구·경북 농어업 / 경북농가인구 20년새 58만명이상 감소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48,000원
신청 방법 : 전화, 053) 766-1368
이메일, kepiglobal@kepi.or.kr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기관일 경우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기재)
입금 계좌 :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주)경영저널

〈독자 투고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706-842 경영저널 편집국
TEL. 053) 766-1368
FAX. 053) 766-1356
독자기고팀(kepiglobal@kepi.or.kr)

농림수산물부 내년 예산 15조4천106억원 편성

내년도 농림수산물부 예산이 올해보다 5천462억원(3.7%) 늘어난 15조4천10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증가율 1.3%보다 2.4%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주요 분야별로 농업·농촌, 수산업·어촌분야에 각각 12조7천348억원과 1조3천51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식품업분야 예산도 6천887억원을 책정했다.

FTA(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수산물 물가와 기후변화, 축산업선진화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 예산(1조6천122억원)보다 15.3% 증액된 1조8천59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보다 3.8% 늘어난 1조4천57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물가 및 수급안정을 위해선 1조4천340억원을 투입, 올해(1조2천538억원)보다 14.4% 증액됐다.

자연재해·기축질병 등 위기관리를 위한 예산도 1조2천308억원을 편성해 27.1% 늘어났다.

이와 함께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 확보 방안으로 예산 2조3천226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올 예산(2조953억원)보다 10.8% 증액된 것이다.

종이 수입증지 폐지

지난 60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수수료 납부 시 사용돼온 종이 수입증지가 오는 2013년까지 모두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올 연말까지 전국 187개 자치단체에서 민원 수수료용 종이증지를 없애고, 늦어도 2013년까지 나머지 246개 자치단체에서도 사용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종이증지는 지난해 기준으로 480억원 상당, 총 1천150만장이 발행됐다.

지난 1950년대 도입된 종이증지는 자치단체에서 현금을 대신해 행정서비스 대가로 받는 것으로, 그동안 재사용 등을 통한 공무원의 횡령 비리 등 적잖은 문제점을 낳아 제도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민원인 입장에서도 은행 등 위탁판매소를 찾아 종이증지를 구



입한 뒤 민원실에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등 적잖은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종이증지 사용을 폐지하기로 확정한 데는 민원행정업무 상당수가 전산화된 것도 한 몫했다고 행안부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원수수료 정산과 관리는 인증기나 전자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수수료율이 단순한 증명서 발급은 민원처리시스템을, 건축허가 등 수수료율이 복잡한 인·허가 민원은 인증기를 이용해 각각 관리된다.

행안부는 종이증지를 대체할 현금에 대해서 은행·우체국과 함께 개인별 금고 사용 등 체계적이면서도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종이증지 폐지에 따라 민원불편을 대폭 덜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수수료가 높은 인·허가 민원에 대한 종이증지 폐지로 부정부패방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남해 초대형 해상 풍력단지 조성

오는 2019년까지 서남해에 사업비 10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2천500MW 규모의 초대형 해상 풍력단지가 들어선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서남해상 풍력종합단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전남·북 지방자치단체, 발전·설비 개발회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데 정부 예산 290억원을 포함해 10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가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된다.

한국전력 등 7개 발전회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8개 민간업체가 참가해 총 2천500MW 규모로 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해상 풍력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연간 6천525GWh

로, 약 139만 가구(556만 명)가 거주하는 도시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규모로 건립된다.

이는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라남·북도 전체 인구(494만명)의 전력 소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규모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100MW 규모의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에 4천억원을, 2016년까지 400MW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2단계 사업에 1조6천억원을 각각 투입하고, 8조1천934억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2천MW 규모의 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지정부 관계자는 “서남해상 풍력단지 조성을 통해 핵심 기술과 개발 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오는 2020년까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차질없이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보육예산 올해보다 35.8% 증액

기획재정부는 내년 보육예산을 올해보다 35.8% 증액된 4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영유아 보육료, 유아 교육비, 육아휴직급여 지원 등 부모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38.4% 증액됐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확충 등 시설지원 예산도 18.3% 늘어났다.

특히 5세아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전 계층에 보육비·육아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도 내년 20만원에서 2014년엔 24만원, 2016년엔 30만원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초과근무비 등 근무환경개선비 407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보육서비스 다양화를 위해선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를 현재 1만명에서 1만3천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 107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육예산은 서민복지의 핵심사항”이라며 “서민층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순태 정책전문기자

기름값 요동 서민경제 먹구름

원화가치 하락·국제 유가 강세 영향

최근들어 기름값이 요동치면서 서민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석유제품은 전체 물가 비중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물가 오르내림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산업계 역시 기름값이 치솟으면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주요 원 부자재 및 물류비용 상승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이 되는 탓에서다. 정부는 최근 기름값이 들쭉이자, 석유제품을 싸게 취급하는 알뜰주유소를 도입하는 등 기름값을 잡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름값 고공행진

석유제품가격은 최근들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사이트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지난 11월17일 기준으로 대구지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 당 1천970.43원을 기록해 2천 원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올들어 대구지역의 휘발유가격은 지난 3월8일 ℓ 당 1천 903.07원을 기록한 이후 단 한차례도 1천900원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경북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같은 날 기준으로 경북의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1천972.74원으로, 연초(1월1일 1천804.67원)대비 168원 이상 치솟았다.

경유제품도 가격이 많이 올라, 이날 기준으로 대구지역 평균 소비자판매가격은 1천772.40원, 경북지역도 1천771.71원까지 올랐다. 설상가상으로 보일러 등유 등 주요 난방유가격 또한 요동치면서 서민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국제 유가 급등·원화가치 하락 주된 원인

기름값이 최근 많이 오른 것은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수입가격이 많이 오른 게 주된 원인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것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월17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주로 도입하고 있는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109.72달러까지 올랐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지난 2009년 배럴당 61.92달러에서 2010년 78.13달러로 오른 뒤 올들어선 100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가격 강세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기름값은 당분간 가격 강세흐름이 계속될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석유자원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대비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때문이다. 신흥국 등의 수요 증가로 석유자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다.

여기에도 유로존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원화가치 하락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우세한데, 이 역시 원유도입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돼 기름값을 끌어올리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경제계 안팎에선 이에 대한 반론도 일고 있다. 미국경기 더블딥 등 주요 선진국 경기가 둔화되고 중국 등 신흥경제강국에서 석유수요가 감소할 경우 국제유가 강세 흐름이 한풀 꺾일 수 있을 것이란 견해가 일부 전문가들 사



이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 알뜰주유소 도입 등 기름값 안정책 강화

최근들어 석유제품 가격이 많이 오르자, 정부도 기름값 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석유제품을 싸게 공급하는 이른바 알뜰주유소 도입을 통해서다.

정부는 이달부터 기존 주유소보다 l 당 70~100원 저렴하게 판매하는 알뜰주유소를 도입하고,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인 1천300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국내 정유사에서 석유제품을 싼 값에 공동 구매하고, 이를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은 공동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달 중으로 공급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알뜰주유소는 농협 NH주유소 300여 곳과 특정 정유업체의 간판을 달지 않는 자가폴주유소 50여 곳, 고속도로 주유소 등을 포함해 연내로 5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기름값 안정책이 향후 얼마만큼 관련시장에서 실효성을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가장

먼저 정유업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등 정부정책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유업체의 입장은 대략 이렇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금도 l 당 10~20원 정도 남기고 주유업소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가격을 이보다 더 낮추는 것은 수지타산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정유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석유제품 판매업소들도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유업소간 과열 경쟁에 따라 제살깎기식 출혈경쟁 양상까지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알뜰주유소까지 등장하면 많은 업소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빚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도 비록 일부지만 알뜰주유소 대상인 자가폴주유점도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보다 마진 폭을 더욱 줄여가며 정부 정책에 얼마만큼 동참할 수 있겠냐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업체에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경우 기름값을 떨어트리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석유제품 유통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이종수 산업전문기자





권영택

영양군수

출생 1962년 영양
학력 영양 초·중·고교 졸업
 계명대 건축공학과 학사
 경북대 산업공학과 석사
경력 한나라당 중앙당 전국위원
 한나라당 경북도당 홍보위원장
 민선4기 제46대 영양군수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現 계명대 총동창회 부회장
상훈 해양수산부장관상 표창
 경북도지사 건설산업인상 표창

‘오지마을’ 영양이 살기좋은 복지농촌으로 거듭나고 있다. 민선 4기에 이어 지난해 7월 민선 5기 연임에 성공한 권영택(49) 군수가 진두지휘하면서 부터다. 국내·외 굴지의 대체에너지 전문업체들의 진출이 줄을 잇고 있고, 대표 특산물인 영양고추를 기반으로 농산물 가공산업에도 눈을 돌려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책기관 및 역외업체 투자유치도 최근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권 군수는 지난 11월25일 영양군청에서 가진 본보와의 대담에서 “잘사는 영양, 행복지수가 높은 영양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변화와 창조를 기반으로 한 미래 지향적 균정을 펼쳐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진하는 참된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 영양’ 만들 터 ”

일문일답

Q 영양군의 경쟁력은?

A 전국 최고의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영양고추는 단연 영양군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지역 농가의 주된 소득원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수년째 고추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등 영양고추 홍보를 위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양지역은 아울러 전체 면적의 88%를 산이 차지하는 만큼 미래 자원 보고(寶庫)로써 크나큰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을 갖춘 덕분에 석유자원 고갈시대를 맞아 대체 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물론 영양군 최초로 산촌체험형 테마파크로 조성중인 산촌누림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미 '웰빙'을 넘어 '힐링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대자연과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향의 고장인 영양을 체험하기 위해 외지인들의 발길이 연중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비면의 수하계곡, 검마산 자연휴양림, 일월산, 대티골 자연치유마을 등 때 묻지 않은 대자연을 자원화 및 상품화하고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자산인 두들마을과 주실마을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보존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로 삼을 생각입니다.

Q '명품(名品) 관광 고장'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선?

A 군은 올 상반기 '반딧불이 생태숲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완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바위 자연생태마을 조성사업'도 이미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도 여럿 있습니다. 대략 몇 가지만 꼽자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 사업',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군은 아울러 인근의 청송, 봉화, 영월군과 함께 현재 'BY2C 외씨버섯길'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지 길을 거닐 때 느낄 수 있는 신비

로움과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면서 문학과 예술, 그리고 옛 전통이 어우러진 탐방로를 조성하지는 것인데, 이미 지난 3월 1차년도 사업이 완료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이를 보기위해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이 예정대로 완료되면 영양군은 '녹색관광 메카'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Q 지역 발전을 위한 차별화 전략에 대해선?

A 가장 먼저 영양군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풍력발전단지 추가 증설사업에 거는 기대가 무척 큼니다.

영양지역엔 현재 가동중인 풍력발전기를 포함해 오는 2014년까지 총 90여기 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갖추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삼을 작정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순풍에 돛 단 배처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대표 대체에너지 생산업체인 STX에너지(주)와 오는 2014년 1월까지 2.0mw급 풍력발전기 20기를 설치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 곳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무려 9만mw 규모에 달하는 것인데, 이는 2만5천여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군은 아울러 일월산 일대에 자생하는 산나물을 지역 대표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산채식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부터입니다.

군은 이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영양 지역에서 살았던 정부인 장씨가 저술한 한글 최초의 음식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에 기초해 한식 세계화 사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통음식학교를 건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 이와 관련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Q **국책기관 및 연수원 유치성과는?**

A 올 5월 신청서를 제출한 '한우개량사업소 분산사업장'의 경우 각고의 노력 끝에 최근 유치가 확정된 상태이며, 국책사업인 '젖소개량사업소 분산사업장'도 지역 유치를 위해 차질없이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멸종위기 중복원 센터 조성사업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에 선정돼 현재 KDI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고려대 산림형 연수원 건립사업도 올 1월 경북도, 영양군, 고려대 등 다자간 협약체결을 맺으면서 조만간 결실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투자유치 성과 덕분에 영양은 앞으로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주민 소득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Q **민선 5기 취임 후 1년여를 평가한다면?**

A 그동안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에 매진해왔습니다.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영양-석보 간 터널 굴착공사를 지난해 연말 완료하고 내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착공한 하원-곡강간 확장·포장 공사도 연말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경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920호선인 예안-청기간 도로 확장·포장 공사와 청기터널 개설 공사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실시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라 관광객유치 등 지역 경제 발전에 큰 힘을 보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 민자 유치사업도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총 면적 81.1km² 규모로 조성되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지구' 지정이 지난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최종 확정되면서

'과학·동화마을 체험타운', '생약연구단지', '휴타운 주거시설단지' 조성사업 등 대형 민자유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입암면 연당리 일대에 3만1천238m² 규모로 추진 중인 남영양 농공단지에는 벌써부터 복수의 식료품 제조업체들이 입주 희망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고추사업특구에도 식료품 업체 2곳이 이미 입주를 마쳤습니다.

Q **복지농촌 조성 비전에 대해선?**

A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사업의 하나로 최근 '청기농업용수개발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청기면 남부지역 9개 지역 1천여명의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보농어촌 용수개발사업'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석보면 6개리, 입암면 9개리 주민 1천400여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청기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기면 북부지역 6개리 700여 주민과 일월면 3개리 500여 주민, 영양읍 6개리 600여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수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상수도 보급률은 기존 70%에서 86%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취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홍수조절 능력을 극대화하는데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영양댐 건설사업의 경우 이미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에 청신호를 켜 상태입니다. 반면천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동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내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민복지 향상에 주안점을 둔 소외계층 지원에도 만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어려운 이웃 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대민지원 창구인 행복배달시스템을 구축해 사회 약자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원하고 있는 동시에 중증장애우 재활센터인 중증장애인 생활 시설도 올 연말 문을 열 예정에 있습니다. U-헬스 원격건강모니터링 서비스를 확대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최근 보건소 신축공사에 뛰어든 것도 주민 복지향상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Q 군정(郡政) 운영 철학은?

A 군정운영의 큰 틀은 '실속있는 영양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속있다'의 의미는 고생한 보람을 얻어야 한다는 것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헤쳐 나가야 한다는 뜻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기 마련인데, 나중에 얻어지는 결과물이 미온적이라면 아니함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어떤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런 마음자세로 군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성장'과 '발전'이라는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Q '살기 좋은' 영양건설을 위한 비전에 대해선?

A 군정 슬로건을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으로 삼고 군민 모두가 잘사는 살기좋은 영양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선 4기 4년동안 행정에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해 농산, 지역개발, 주민복지분야에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선 5기에는 민선 4기 동안 다져온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이른바 '실속영양', 그리고 '할짜배기 성과'를 거두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각오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군정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Q 평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소임에 대해선?

A 영양군의 변명과 발전을 위해 일하는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잘사는 영양, 행복지수가 높은 영양을 만드는데 임기 끝까지 초지일관(初志一貫)의 자세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지역 발전 모델로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지역의 광역자치단체가 지향하는 정책을 답습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영양군이 간직한 고유 경쟁력을 살려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양군 곳곳에 산재해 있는 천혜의 대자연과 조상의 얼이 살아 숨 쉬는 고유한 전통 문화를 새로운 가치로 재창조해 중·장기적인 로드맵으로 활용하고, 아울러 주민 모두에게 '하면된다'는 자신감을 북돋아줘 살기좋은 영양을 반드시 일궈내겠습니다.

변화와 창조를 기반으로 한 미래 지향적 군정을 토대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고 노력하는 '참일꾼'으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대답=서기대 편집국장
정리=박홍우 기자



농어촌버스 요금제 단일요금제 전환 필요

교통서비스 질적 향상 기대...이용자 교통비 부담도 경감



경북지역 지자체의 대중교통요금제 운영이 시·군마다 천차만별이다.
시(市)지역 상당수가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군(郡)단위지역 대부분은 구간요금제를 적용
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북지역 농어촌 구간요금제 대다수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 중 단일요금제를 적용하는 지자체는 영천, 포항, 김천, 경주 등 총 11곳이다.

이와 달리 시 지역 가운데선 영주만이 구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13개 군지역 중에선 울진과 군위를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구간요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단일요금제는 기본요금만 지불하면 거리와 관계없이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요금제를 뜻한다.

반면 구간요금제는 출발지점부터 10km까지만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이후부터는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을 지불해야하는 점이 단일요금제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주민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마다 궁극적으로 단일요금제 도입을 바라지만 현실은 녹록치만은 않다.

지자체들이 내세우는 명문은 예산부족이다.

적자노선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관련예산을 확대하는 데는 재원 조달에 적잖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영주시 대중교통담당은 "(영주시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단일요금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 시점에서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당장 요금제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청송군 관계자도 "예산상의 이유로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혔다.

단일요금제 적용 시 이용자 교통비 부담 경감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요금제의 경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니는 만큼 장기적으로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단일요금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요금 조사·분석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 관계자는 "대중교통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거리에 따라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구간요금제는 지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단일요금제로 전환해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시행해온 구간 요금체계는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

을 지불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충실한 제도라면, 단일요금제는 거리에 관계없이 기본요금만 지불하면 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러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 원거리 이용자 및 교통약자층에게 교통비용 절감효과가 있어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그동안 만성적으로 발생하던 승객과의 요금시비가 없어지고 질 좋은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북지역 23개 시·군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국토부 훈령에 기초에 대중교통요금 산정 및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대중교통발전위원회와 공공요금 조사·분석기관의 외부 용역 및 검토 등을 거쳐 교통비를 확정하고 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비용 또한 경북지역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객관적인 농어촌버스 업체의 경영실태 및 경영진단을 통한 재정진단과 더불어 향후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환승체계 개선, 읍면소재지 간 노선체계 개편, 민간마을버스 소형차량운영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경북지역의 지자체 상당수는 일반 시내버스(군지역 농·어촌 버스)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성인 1천200원, 중고생 900원, 초등생 600원으로 최근 한 차례 조정된 바 있다. 이는 울들어 불가인상 요인을 반영해 성인기준으로 200원 가량 인상된 것이다.

정성민 편집위원



유럽재정위기 장기화 비관론 대두

정부 '거시경제안정보고서' 통해 언급
...재정위기 탈출 낙관 시기상조



정부가 그리스발(發) 유럽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풀리지 않을 것이란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서다. 정부가 공식자료를 통해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란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로존 재정위기는 G7 국가이자 유로존 3대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에까지 확산되는 추세여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선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록 극단적인 시나리오지만 이탈리아에 이어 다음 불똥은 유로존 양대 축인 프랑스가 될 것이란 비관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로존 신용경색은 외국계 자금 이탈,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

정부, 유럽재정위기 장기화 우려

유로존 재정위기와 관련, 재정부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낙관론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선 데는 EU 각국 정상과 유럽 은행들이 최근 합의한 약속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지 낙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 측은 우선 그리스발 유럽국가 재정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EU 각국 정상과 은행들이 최근 합의안을 도출해 제시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1조유로 확충안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레버리지 허용방안에 대해 회원국 의회 등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EFSF가 민간자금이거나 중국 등 역외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합의 사항인 은행자본확충에 대해서도 시장의 필요액인 1천~3천억유로에 못비치는 1천60억유로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돼, 향후 자본 확충 등 재원부담 문제를 두고 파열음을 빚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리스 국채 손실 분담에 민간 채권자가 얼마나 참여할지 불확실하며, 참여율이 높다 하더라도 채권자 중 민간비율이 23%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는 오는 2020년기준으로 그리스 국가채무비율(IMF 추정치)을 151%에서 120%로 낮출 수 있는데 그치는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EU 국가간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거나 유럽 재정위기국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다시 침체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정 긴축여파로 성장세가 둔화되면 조세 수입이 감소하고, 결국 재정악화라는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은행간 자기자본비율 개선 노력 역시 대출 축소, 자산 매각으로 이어져 신용경색, 성장둔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게 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번 합의사항은 현재 추진중인 유럽 재정위기국가들의 재정 건전화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도출된 약속이어서 만약 변수가 생길 땐 유로존 공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예컨대 재정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그리스는 올해 GDP대비 재정적자 목표치를 당초 7.6%에서 8.5%로 수정했고, 또 다른 재정위기 국가인 이탈리아도 최근 재정건전화 방안을 내놨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시장에서 우세한 형편이다.

시장의 평가가 대체로 유보적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한 재정위기 국가들의 경우 향후 경제개혁 및 재정건축 과정에서 국민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정부 측은 “국가간 불균형 조정과 재정통합 강화를 위한 대책이 없을 경우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유로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이 같은 문제점





을 감안할 때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U의 경우 노동의 국가 간 이동과 경제구조의 수렴·동조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통화통합을 진행함에 따라 역내 국가 간 경제성장과 경상수지 등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재정위기도 기본적으로 이런 불균형을 국가 단위의 재정적 재정부운을 통해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게 재정부 측의 설명이다.

유로존 신용경색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

보고서는 이와 함께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대외여건 불안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시장개방성과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적 구조 때문이다.

유럽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되고, 수출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 성장률 6.2%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확인했지만 올 들어서는 GDP 증가율이 1분기 4.2%에서 2분기 3.4%로 떨어진 이후 3분기에도 3.4%에 그치는 등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유럽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될 경우 허방 위험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경제 전반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둔 경제정책을 강화해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물가안정과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나서야하고 현장중심의 경제정책을 확대해 경제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받지 않도록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대외적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핫머니 등 투기세력에 의한 외화 쏠림현상 등 자금흐름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 경고

보고서는 아울러 향후 세계경제도 회복세가 차츰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라 경기부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계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신흥 경제국 역시 선진국 경기가 나빠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쌓이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요 선진국 중 미국은 3분기 성장률이 2.5% 신장세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다시 침체되는 더블 딥(Double Dip) 우려는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라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당국의 강한 의지도 경기회복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는 4천4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최근 의회에

서 부결된 이후 주택소유자의 모기지 대출 규모와 관계없이 리파이낸싱(재융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연준도 제로금리를 오는 2013년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보유자산 중 장기국채 비중을 확대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를 실시한 가운데, 특히 최근들어선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조치까지 언급하는 등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세계 경제의 한 축인 중국경제에 대해선 비(非)은행권 대출 부실, 주택시장 버블 붕괴, 지방정부 부실 등 내부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중국은 현재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은행 대출이 축소되면서 사채 등 비은행권 대출이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2009년말 기준으로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무려 8배에 달하는 등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부채비율(추정치)이 지난해기준으로 GDP의 27~50% 수준인 10조7천억~20조위안에 달하는 등 경고음이 커진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악재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은 적지만 각각의 위험요소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일부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우리 경제는 대(對)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모니터링 확대 등 동향분석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프랑스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민간 연구소의 어두운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이탈리아 재정위기의 파급경로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유로존 도입 이래 최고치까지 치솟으면서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이탈리아 재정위기가 프랑스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4개 은행이 보유중인 이탈리아 국채는 530억 유로에 달한다. 이는 프랑스가 갖고 있는 그리스 국채 101억 유로의 5배를 웃도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등을 거쳐 유럽 전역으로 신용경색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구원 측은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요 국가간 통화스와프 체결 확대, 적절한 외환보유고 관리 등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희 금융전문기자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적용

m²당 수도권 5만7천730원, 비수도권 4만830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부담금을 쉽게 산정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표준개발비용제도를 도입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11년 5월 19일 개정·공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11월 11일 개정·공포

이번에 새로 도입된 표준개발비용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천700m²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납부의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실비정산방법에 의해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게 주된 골자를 이룬다. 즉, 개발사업면적이 2천700m² 이하 구간에서는 실제투입 개발비용과 표준비용 적용방식에 따른 결과값을 비교해 볼 때 표준편차가 적어 안정적이고 소규모 사업이 많이 분포돼 표준개발비용 적용대상 범위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토해양부 측은 밝혔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 3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6항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일선 시·군·구에서 실제 개발부담금을 부과·처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수도권인 경우 5만7천730원/m², 비(非)수도권인 경우엔 4만830원/m²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이에 대해 일반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지역의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높게 책정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을 주로 시행하고, 임야 등을 많이 개발함에 따라 임야 및 토사반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로 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자기부담으로 조성해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공사비가 개발비용에 합산되고, 아울러 측량·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의 경우 토지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수수료를 보다 많이 지불하고 있는 데 근거를 댔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납부의무자와 부과관청간의 갈등이 대폭 해소되는 등 각종 민원 및 행정소송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일형 편집위원



2011 수성아트피아 특별기획공연
12월의 파티

2011 난타 크리스마스 특별 대구공연

전 세계를 감동시킨 크리스마스 최고의 공연 난타!

NANTA

2011.12.21(수)~12.25(일)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주최 | 수성아트피아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대구MBC 주관 | 파워엔터테인먼트(주) 제작 | PMC PMC PRODUCTION

협찬 | 대구보건대학 계명문화대학

난타가 크리스마스 할인을 쏩니다!

20%

패밀리가 떴다! 4인 가족할인!

4인 가족이함께 난타를관람하면 난타는더욱 재미있다!
(가족사진 or 가족모두 매표소로 or 기타 증명자료-의료보험증 등 지참)

하트뽕뽕 커플이벤트!

크리스마스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커플임을 증명해주시면 할인이 쏘아져요♥
(커플링, 커플티, 커플사진 등으로 증명)

* 모든 할인은 중복할인 불가합니다. 현장에서 증명자료 미지참시에는 차액금을 지불하셔야합니다.

30%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표 지참시 전 좌석 3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1매)

청소년 + 실버할인!

청소년 (초, 중, 고) 여러분과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청소년 - S석에 한함 / 학생증, 알림장, 의료보험증 등 지참)
(65세 이상 - 1946년 이전 출생자, 신분증 지참)

연말연시 소모임, 문화회식! 최고의 감동! 난타와 함께하세요

20인 이상 관람시 20% 할인! (추가 인원이 있을 시 기획사로 문의 하세요!)

문의 | 053_762-0000 파워엔터테인먼트(주)



‘건이강이봉사단’

대구·경북 대표 봉사단체 자리매김

건보 대구지역본부 소속 직원 1천160명 참가 ... 나눔 사랑 ‘훈훈’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가 대구·경북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로 창단 7년째를 맞은 ‘건이강이봉사단’이 주역이다. 11월말 현재 건이강이봉사단에는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와 대구·경북의 21개 지사 소속 직원 1천160명이 참가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모금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최근까지 9억1천200만원의 봉사기금을 마련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다. <편집자 주>

지난 2005년 3월 창단된 ‘건이강이봉사단’은 ‘나눔과 함께, 건강도 함께, 아름다운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모토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늘진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참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복지시설 지원, 재난 구호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홀몸어르신과의 자매결연 등 인적 교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봉사단 출범이후 그동안 대구·경북소방본부와 함께 이동이 불편한 670여 어르신 가구에 119응급구조 시스템인 무선폐이징단말기를 설치하고 이들 어르신들을 수시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농·어촌 마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 등 보건지원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봉사단은 특히 의료사각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지역의 사업장과 단체, 지자체 등의 후원을 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홀몸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해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이 나눔사업을 통해 최근까지 832개 기관과 단체 및 개인, 지자체 353곳이 참가해 건강보험료 80억9천만원을 소외계층에 지원했다고 봉사단 측은 밝혔다. 취약계층 119만9천가구에서 혜택을 받은 것이다.

봉사단은 아울러 다문화가정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 535명을 대상으로 1천건 이상의 의료 진료사업을 전개하고, 아동복지시설 원생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습지원 봉사활동, 도서 전달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 7월에는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와 ‘몸튼튼 마음튼튼’ 프로젝트 협약을 맺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질환 어린이들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훈훈한 정(情)을 나누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9년 대구시가 주최한 대구자원봉사박람회에서 최우수단체에 선정되는 등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경순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진 기자

갈치 등 주요 수산물 가격 강세 지속

최근들어 수산물가격 오름세가 심상찮다. 어획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이 즐겨 먹는 갈치값은 무려 10년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이 주로 애용하고 있는 고등어, 굴, 오징어 등도 가격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편집자 주>

갈치값은 최근들어 소위 '금값'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해에도 가격이 많이 뛰었는데, 올핸 이보다 더 치솟아 소비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어획량이 작년보다 20% 가량 줄어든 때문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월21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거래된 갈치 도매가격(중품 1kg)은 1만9천원으로 평년의 1만3천807원에 비해 61%(7천193원) 치솟았다.

전국 평균 도매가는 이 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돼, 1만9천300원에 판매됐다. 일년전 이맘때 도매가격도 1만6천250원으로 조사됐다.

수산물은 최근 갈치뿐 아니라 서민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 등도 가격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기온 등으로 어획량 감소와 함께 수입 수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게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일부 수산물 중에선 일본 등지로 수출물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공급물량이 줄어든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지난 11월21일 판매된 고등어 도매가격(중품 1kg 전국 평균가 기준)은 4천460원까지 올랐다. 이는 평년보다 1천324원, 1년전보다 775원 각각 오른 것이다.

이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등지에서 거래된 대구지역 고등어 도매가격(중품 1kg)도 무려 4천700원까지 치솟았다.

같은 날 기준으로 대구지역 대형 소매점인 N-유통과 H-마트에



서 판매된 고등어 소매가격(중품 1kg 기준)은 각각 5천200원, 4천980원을 기록해 1년전 이맘때보다 1천700원, 1천350원 비싼 가격에 거래됐다.

이같은 가격 강세 흐름은 겨울철 별미 수산물인 오징어와 굴도 마찬가지다. 11월21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거래된 물오징어 중품 도매가격은 1kg당 5천900원까지 치솟아, 평년 2천733원과 비교해 배 이상 올랐다. 같은 날 대구지역에서 판매된 굴 도매가격(상품 1kg) 역시 1만2천원에 거래돼, 평년의 1만367원에 비해 1천633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는 "어획량 감소 등에 따라 갈치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 강세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갈치 도매가격이 1만9천원을 넘어선 것은 10년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통계전문기자



영양, 청정에너지 산업 메카 도약

풍력발전시설 속속 조성...지역발전 원동력 될 듯

경북 영양이 국내 최대 청정 에너지산업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들어 국내·외 굴지의 풍력발전 생산업체들이 투자지역으로 선호하면서 이런 현상은 한층 확산되고 있다. 풍력에너지를 생산하기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확보한 때문이다.

영양, 풍력에너지 메카 자리매김

영양지역엔 최근들어 국내·외 굴지의 대체 에너지생산업체들의 진출이 붐몰을 이루고 있다. 가장 최근엔 STX그룹이 풍력단지 조성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영양군은 최근 국내 대표 풍력발전생산업체인 STX에너지(주)와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TX에너지는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년간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1천억원을 투자해 2.0MW급 발전기 20기를 설치하고 연간 9만MW 가량의 전기를 생산해 2만5천 가구에 공급하기로 했다.

상업용 전기 생산은 착공 2년후인 2014년 1월부터 본격도에 오른다고 STX에너지 측은 설명했다. STX에너지는 아울러 투자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발전단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채용시 영양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건립하는 한편 발전단지 공동 참여를 통해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영양군 역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업

무를 신속히 처리해 이번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양지역에 풍력단지가 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보다 앞서 스페인 악시오나사(社)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천800억원을 투자해 영양군 석보면 요원, 삼의리 맹동산 일원에 1.5MW급 풍력발전기 41기를 설치하고 현재 청정 대체 에너지인 풍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 풍력단지는 연간 발전량 15만8천MW 규모로, 5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악시오나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총 29기 규모의 풍력발전 2차단지도 현재 영양지역에 조성 중에 있다. 이렇게 되면 조만간 영양지역엔 총 90여개의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게 된다.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풍력발전단지 메카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다.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

영양지역 곳곳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이처럼 활발한 데는 뛰어난 입지적 장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양은 전체 면적의 86%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남북으로 낙동정맥이 지나가고 동쪽에서는 해풍이, 서쪽에서는 내륙풍이 연중 일정한 속도로 불고 있다. 바람 강도 또한 전국에서 가장 센 지역에 속한다고 기상청 측은 설명했다. 해발고도가 높고, 바람이 연중 세게, 일정하게 불면서 풍력발전기를 가동하는데 가장 적합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풍력을 이용한 전기 생산 단가는 화석연료를 주원료로 하는 화력발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발전 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며, 태양광에 비해 경제성이 뛰어나 차세대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영양군 측은 밝혔다.

‘영양발전’ 성장 동력 기대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영양군에 미래 성장 동력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너지 효과가 큰 이유에서다.

기반 시설 조성에 따라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고령지체소단지, 목장 등과 연계한 관광명소로도 활용가치가 큰 때문이다.

영양군에 따르면 풍력발전단지 건립에 따라 시설 유지 및 관리 분야에 연간 2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발전시설을 이용한 자연에너지 체험 학습장과 전망대 등을 설치함으로써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관광산업 활성화에 적잖게 힘을 보태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영양군 측은 “풍력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청정 이미지 부각에 따른 농가 소득 향상 효과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진단했다.

이종수 산업전문기자



“전국 최고 영양고추 맛보세요”

‘빛깔찬 고춧가루’ 등 전국적 명성...진고추 등도 주문 쇄도

영양은 전국 제일의 고추 주산지다. 맛과 품질이 뛰어나 ‘고추=영양’을 떠올릴 정도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영양, 국내 제일의 고추주산지

영양에서 생산된 고추는 단연 일등급 고추로 평가받고 있다. 얼마만큼 맛과 품질이 뛰어날까. 화려한 수상이력이 이를 입증해준다. 영양고추는 지난 1992년 개최된 ‘제1회 전국품평회 채소류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99년 제8회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회 채소류 대상’, ‘2007년 제16회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회 채소류 특별상’, ‘2011년 제20회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채소부문 대상’ 등 국내에서 생산된 고추제품에 주어지는 최고 상(賞)을 휩쓸고 있다.

영양고추는 당질 함량이 높고,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 것은 물론 중대과종으로 고추 표면이 매끈하고 과피가 두껍다는 특징을 지닌다. 최고급 고춧가루 생산에 용이하다는 얘기도 있다.

고추 고유의 빛깔이 곱고 선명하며, 고추씨가 적고 질감이 좋아 맛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지닌다. 이 처럼 영양고추의 품질이 우수한 데는 고추재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갖춘데 있다.

영양은 연평균 강우량이 900.9mm에 그치고, 무상(無霜)기간 또한 169일로 인근지역인 봉화(140일)나 청송(148)에 비해 대략 20여일 더 길다. 고추개화기에서부터 결실기까지 밤낮 온도차가 11.3℃로 크고 고추생육의 최적 토양인 식양토(埴壤土)가 주를 이루는 것도 한 원인이 된다.

여기에도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한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도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생산 농가들은 비로나 농약

을 대신해 양질의 유기질 퇴비사용을 늘리고 있으며, 영양군 측은 재래종 고추인 수비초, 칠성초 복원에 나서는 등 우수 형질의 품종육성 및 개발을 통해 고품질 고추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병해충 예방을 위해 플러그 육묘, 접목묘 등을 장려하고 있으며,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한 농가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가공산업통해 농가소득 극대화

영양군은 단순한 고추 생산과 판매에 그치지 않고 가공산업으로도 눈을 돌려 부가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영양지역에서 생산된 최고급 홍고추로 만든 ‘빛깔찬 고춧가루’가 대표적이다. ‘빛깔찬 고춧가루’는 영양 현지에서 생산된 홍고추를 2회 세척하고 살균과 절단, 건조, 분쇄(Pneumatic System)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철저한 위생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고춧가루는 맵기 강도에 따라 순한맛과 보통맛, 매운맛 등 세 제품을, 입자크기에 따라선 김치용과 양념용 등 두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고효율 연속 건조기를 이용해 짧은 시간에 건조한 덕분에 자연 색 빛깔을 유지하고, 비타민 C·D 등이 다량 함유돼 소비자들로부터 인지도가 높다. 영양군은 이와 함께 영양고추를 이용한 개량고추장도 생산,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다.

일등급 고추를 엄선해 깨끗한 물과 찻쌀, 메주 등을 혼합해 만



든 '영양고추장' 이 바로 그 것이다. 이 고추장은 매콤하면서 달콤한 영양고추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해 전국 각지에서 주문 문의가 쇄도 하고 있다고 영양군 측은 전했다.

농가 판로지원도 적극

영양군은 특히 고추생산농가의 판로지원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 국내 대표 고추축제인 '영양고추문화축제' 를 통해서다.

매년 가을 건고추 수확기에 열리고 있는 '영양고추문화축제' 는 국내를 대표하는 '현장 농산물문화체험 축제'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존의 일반적인 축제 틀에서 벗어나 대도시 소비자를 직접 찾고 있는 이유에서다.

'2011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 이란 타이틀로 개최된 올해 축제는 지난 9월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돼 서울 등 수도권지역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축제에서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강석호 국회의원, 이재오 전 특임장관, 김관용 경북지사를 비롯해 향우회 관계자 등 2천여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영양군 측은 행사기간동안 일반초와 태양초(특상품 600g 기준)를 각각 2만2천원과 2만4천원에 판매하는 등 최고급 영양고추를 시중가보다 20% 가량 싸게 선보여 큰 인기를 얻었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영양고추문화축제를 통해 영양고추 브랜드 제고 및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생산능가 판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종수 산업전문기자



에너지 절약, 이젠 선택 아닌 필수



이진열

한국전력 대구경북본부
영업총괄팀장

최근들어 동장군이 기세등등하다. '계절의 시계 추'는 어느새 겨울 한 복판으로 향하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가게, 기업 등 각 경제 주체마다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곤 한다. 하지만 '절약정신'은 늘 뒷전인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진다.

전기 사용 최근들어 급증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국내 총 에너지 수요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주요 자원의 자립도가 극히 낮다는 얘기가.

하지만 이와 반대로 에너지 소비량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치달고 있다.

실제로 국민 소득수준 향상과 국가 경제성장에 힘입어 에너지 소비량은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 사용량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선 전기대체재인 유류나 가스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리한 전기 사용량이 덩달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는 이상한파에 따라 난방용 전기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여름철이 아닌 겨울철에 최대수요전력 최고치 경신이 잇따르고 있다는 추세다.

전기 생산보다 적절한 수요관리가 더 중요

전기 생산을 위해서는 발전소와 공급설비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국가는 최대 수요전력과 적정 예비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발전소를 조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는 정답은 되지 못한다.

발전소를 많이 조성하면 전기에너지는 풍족하게 공급할 수

는 있으나 결국에는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전 세계적으로도 전기에너지에 있어서는 생산보다 수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전기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서도 다양한 수요 관리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 국민들의 전기에 대한 인식전환과 절전을 위한 각 경제 주체들의 각고의 노력이라고 필자는 주저없이 밝힌다.

에너지 절약 실천의지가 관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료가 싼 국가에 속한다. 그래서 어쩌면 절약정신이 퇴보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에너지 절약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내복입기, 미사용 전기기기 전원차단 등은 생활 속에서도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이 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최근들어 세계 경제는 또 한번 요동치고 있다. 유로존에서 발발한 신용경색 탓이다. 이미 유럽발(發) 재정위기는 세계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EU국가로의 수출물량이 줄고 있는 등 예외는 아니다.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는 허리띠를 더욱 단단히 졸라 매야할 것이다. 그 해법을 에너지 절약에서 찾았으면 한다.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인 절전을 통해서 말이다. 에너지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Travel Sketch

추억이 머무르는 곳



영양 석보 두들마을

한글 최초의 음식 조리서인 음식디미방 저자 정부인 장씨(1598-1680)가 노년을 보낸 두들마을엔 순조 33년(1833년)에 건립된 유우당, 갈암(葛庵) 이현일(1627-1704) 선생이 후학을 양성한 남약정, 320년 역사의 석계고택 등 많은 역사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자료출처 : 영양군

조지훈 시인의 고향 주실마을

영양 대표 관광명소 ... 관광객 발길 북적

주실마을(일월면 주곡리 소재)은 영양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명소로 주저없이 꼽힌다. 청록파 조지훈 시인의 생가, 조선 영조 때 건립된 월록서당, 17세기 조성된 양반가옥인 옥천종택 등 마을 곳곳에 유·무형문화재가 즐비한 때문이다.



① **주실마을** 주실(主室)이란 이름은 하늘에서 바라본 마을모양이 배의 모습과 닮았다고 해 지어졌다고 한다. 마을 북쪽에 일월산이 있고, 서쪽엔 청기면, 동쪽은 수비면, 남쪽은 영양읍과 맞닿아 있다. 한양(漢陽) 조씨(趙氏) 집성촌인 주실마을은 한국 인문학의 대가인 조동일, 조동걸, 조동원 교수 등 걸출한 인재를 많이 배출한 마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특히 한국 근·현대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청록파 시인 조지훈도 이 마을 출신이다.

조지훈 시인의 생가인 호은종택(湖隱宗宅·경북도 기념물 제78호)이 마을 한복판에 널찍이 자리잡고 있으며, 옥천종택(玉川宗宅·경북도 민속자료 제42호), 월록서당(경북도 유형문화재 제172호) 등 보존가

치가 높은 문화유산이 즐비하다. 조지훈 시인의 삶과 발자취, 문화세계를 엿볼 수 있는 지훈문화관과 지훈시공원 등도 마을 한 켠에 있다. 비호풍수로 조성된 마을입구의 숲은 지난 2008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② **옥천종택** 이 종택은 지난 17세기 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한양 조씨 옥천(玉川) 조덕린의 고택으로 알려져 있다. 조덕린은 조선 숙종 17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교리(校理)와 동부승지(同副承旨) 등을 지낸 조선시대 대표 문인 중 한 명이다. 이 고택엔 살림채인 정침(正寢)과 글을 읽는 별당(別堂)인 초당(草堂), 가묘(家廟)인 사당(祠堂) 등이 들어서 있다. 살림채는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는



‘ㄷ’ 자형 뜰집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이는데, 다만 안방이 동쪽에 있고 사랑방이 서쪽에 배치된 점이 다르다. 가옥의 평면구성에 좌우가 바뀐 이 같은 형식은 18세기부터 안방과 부엌이 서쪽으로 배치되는 구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 초당은 전형적인 서당의 평면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서당은 18세기말 건물양식을 띠고 있다.

③ 월록서당 조선 영조 49년에 월하(月下) 조운도가 발의하고 한양 조씨, 야성 정씨(雁城鄭氏), 함양 오씨(咸陽吳氏) 등이 추축이 돼 후진 양성을 위해 건립한 서당이다. 영산서당을 서원으로 승격한 이후 영양지역에 처음으로 조성된 서당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서당은 4칸 겹집으로 넓고, 앞으로는 장군천이 남쪽으로 흘러 서당앞을 돌아 낙동강의 원류를 이루고 있다. 주봉인 일월산이 뺨내려 경치가 뛰어나고, 앞쪽에 독산과 홍림산이 안대(眼帶)를 이루고 있다. 서당의 중간은 마루이고 양쪽이 방인데, 왼쪽은 존성재(存省齋), 오른쪽은 극복재(克復齋)라는 편액이 붙어 있다. 대산(大山) 이상정의 서당기와 천사(川沙) 김종덕과 간옹(艮翁) 이현경의 시판이 새겨져 있다. 이 서당은 주로 동남문풍의 구심점이 됐는데, 서당의 현판은 조선 시대 영의정을 지낸 번암(蕃巖) 채재공 선생의 친필로 알려져 있다.

④ 호은종택 이 종택은 청록파 시인 조지훈이 태어나고 지란 곳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조지훈 시인은 본관이 한양이고 본명은 동탁(東卓)이며, 지훈은 호다. 그는 1939년 문장지(文章誌)에 ‘고풍의 상’이 추천되면서 등단해 ‘청록집’, ‘풀잎단장’, ‘조지훈시선’ 등 주옥 같은 문학작품을 많이 남겼다. 조지훈 시인의 생가인 호은종택은 이

마을 한양조씨 입향조 조전의 둘째 아들인 조정형이 조선 인조 때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북 북부지방의 전형적인 양반가옥 모습을 보여주는 ‘ㄷ’ 자형으로, 정침(正寢)과 대문채로 크게 구분된다. 이중 정침은 정면 7칸, 측면 7칸 구조이며, 정면의 사랑채는 정자형식으로 돼 있고 서쪽에는 선생의 태실(胎室)이 있다.

대문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으로 돼 있고 ‘솟을대문’이 있다.

⑤ 지훈문학관 청록파 시인이자 지조론의 대표 학자인 조지훈 선생을 후세에 기리기 위해 지난 2007년 건립한 문학관이다. 현판은 미망인 김난희 여사가 직접 썼다. 문학관 안으로 들어서면 562㎡(170평) 규모의 단층으로 지어진 목조 기와집이 ‘ㄷ’ 자 모양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이 문학관에 시인 조지훈의 대표작인 ‘승무’가 흘러나오고, 동선을 따라 조지훈 선생의 삶과 그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유년시절 자료, 시집 등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있다.

조지훈 시인이 쓴 주례사와 평소 썼던 문감과 서랍이 있고, 30대 중반에 썼다는 검은색 모자와 가죽 장갑, 40대에 즐겨 사용한 부채, 그리고 말년에 애용했다는 담배 파이프와 안경 등도 전시돼 있다.

문학관을 들어서면 한쪽 벽면에 선생의 삶의 단상을 엿볼 수 있는 100여개의 사진이 걸려 있으며, 그 맞은편엔 헤드폰을 통해 생전 투병 중인 시인이 여동생 조동민과 함께 낭송했던 시 낭독을 들을 수 있다. 관람시간은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뉘, 3~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1~2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시간 단축된다. 단체관람 예약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054-682-7763)로 하면 된다.

유통가 에코마케팅 활발

웰빙 트렌드 확산 ... 식품, 의류, 화장품 등 제품 영역 다양

▶유통업계가 친환경 기반의 '에코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소득 향상과 함께 사회 전반에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면서부터다. 지역 유통가에선 친환경 제품 매출이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품 영역 또한 기존의 식품 중심에서 의류, 화장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친환경 먹을거리 인기

국내에서 에코마케팅이 가장 활발한 곳은 식품업계다. 자녀들이 먹는 이유식이나 과자, 간식 등에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곡물, 야채를 사용하거나 인공 향이나 색소 첨가를 배제한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지역 유통가에서도 친환경 식품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대구에 처음으로 문을 연 100년 역사의 독일 최대 유기농 전문점인 '테콤하우스'에서는 화학비료는 물론 살충제, 제초제 등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커피, 주스, 시리얼, 파스타, 소스, 드레싱 등 친환경 기반의 350여 제품을 선보여 '웰빙족'을 중심으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 제품의 성분과 안정성, 생산공정, 책임성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과한 친환경 제품만을 시판하고

있다고 '테콤하우스' 측은 귀띔했다.

제과업계에서도 친환경제품은 속속 출시되고 있다.

국내 대표 제과 브랜드인 '오리온'이 내놓은 '마켓오'는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고 천연 재료만을 엄선해 만든 '웰빙과자'로 이름이 높다. 이 과자는 요거트로 천연 발효시킨 담백한 맛의 '워터크래커', 피스타치오, 흑임자, 크랜베리 등 8가지 과일과 견과류를 넣은 '브레드칩', 순수 초콜릿으로 만든 '리얼브라우니', 국산 감자에 덴마크산 고급 치즈를 뿌리고 키놀라유로 구워낸 감자칩 '순수감자프로마즈' 등 총 4종류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음료 시장에선 생착즙 주스인 '아임리얼'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 제품은 친환경 과일과 야채 이외에 식품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아 프리미엄 주스의 대명사로 각광받고 있다. 생착즙 주스는 생과일 주스와 같이 과일을 그대로 갈아 상품화한 것으로, 농축과즙액을 재가공해 만든 주스와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지닌다.

의류제품도 '에코 열풍'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한 '에코 마케팅'은 최근 의류업계에서도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런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듯 천연섬유 소재는 물론 콩 함유 내의와 유기농 목화를 사용한 로하스 의류제품이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청바지 브랜드 '리



바이스'에서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 케어라벨을 부착한 제품을 선보여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명 '에코 케어라벨'로 불리는 이 제품의 라벨엔 △찬물로 세탁하기 △자연건조 △필요없는 청바지는 기부하세요 등 친환경적 사후 관리법을 소개해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바이스는 아울러 올해 출시한 신상품에도 워터리스 가공법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 기반의 청바지 제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카운테스마라 셔츠'에서는 환경과 건강을 생각한 유기농 셔츠를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코

폼 브랜드에서도 에코 트렌드를 반영한 '유기농 화장품'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유기농 기반의 크림과 로션은 전체 성분의 95% 이상을 천연원료로 적용하고 있으며, 스킨과 오일도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성분의 70% 이상을 유기농 원료를 이용해 만들어야한다. 대표적 제품으로는 '더바디샵'이 출시한 유기농 라인 '뉴트리가닉스'이 꼽힌다. 이 화장품은 현재 주름과 탄력, 피부결을 관리해 주는 스킨케어 제품으로 세럼, 크림, 마스크, 아이크림 등 모두 8종으로 출시되고 있다. 랑콤도 천연 소재를 사용한 립글로스 '쥬이시 튜브'를 내놓고



튼의 미세한 솜털 입자로 만들어진 뱀버그 소재를 적용해 착용감이 부드럽고 안락함을 강조한 게 특징이다. 뱀버그 소재의 최대 강점인 피부 마찰을 줄여줘 정전기 발생을 없앤 데다 화학 약품 처리를 하지 않아 포르말린 계열의 발암 물질을 차단한 것도 인기비결로 꼽힌다. 이밖에 닥스골프에서는 '에코 트래블' 라인을 출시하고 있으며, 속옷 브랜드 보디가드에선 피부에 자극이 없고 착용감이 뛰어난 알로에 가공 내의를 각각 내놓고 있다. '힐라 키즈'에서는 페그물 등에서 추출한 리젠 소재로 제작한 어린이용 셔츠를 선보이고 있다.

유기농 화장품도 속속 출시

'에코 열풍'은 최근 화장품업계에도 일고 있다. 국내·외 화장

품이다. 지난 2000년 첫 선을 보인 이 제품은 올해 '쥬이시 튜브 100% 내추럴 오리진'이란 이름으로 업그레이드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주성분은 꿀과 시어버터이고, 색소 또한 천연재료만을 사용했다고 랑콤 측은 전했다.

이 화장품은 100% 천연 성분을 적용한데다 상큼한 패키지 디자인 덕분에 친환경 화장품시장에서 마니아층이 두터다.

대구백화점 구승본 이사는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친환경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 트렌드는 사회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대구백화점 역시)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유기농 상품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나 유통전문기자

대구 기초의회 5곳 의정비 인상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회와 대구지역 기초의회 상당수가 내년도 의정비를 줄 줄이 인상해 시·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경기 불황 속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경제를 외면한 채 실속행기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속지지 않고 있다. <편집자 주>

본보 집계 결과, 내년도 대구지역 8개 기초의회 가운데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한 곳은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등 5곳에 달했다. 반면 서구·북구·달성군의회 등 3곳은 동결했다.

수성구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6.8% 올려 인상폭이 가장 높았으며, 남구의회와 동구의회, 달서구의회, 중구의회도 각각 4.5%, 3.80%, 3.40%, 3.10%씩 인상했다.

중구의회는 2년 연속 의정비를 인상한 것이고, 달서구의회는 1인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액(3천674만원)보다 46만원 많은 3천72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대구시의회는 불경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의 고통 분담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른 서구의회도 구(區) 재정 상태를 감안해 동결을 선언했고, 달성군의회도 5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확정했다.

경북지역에선 경북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5천215만원으로 책정해 올해보다 4.9%(245만원) 인상됐다. 기초의회 23곳 가운데선 예천군의회만 5.8% 인상한 반면 나머지 22개 의회는

모두 동결했다. 경북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물가 및 공무원 보수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행정안전부의 지급기준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의정비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이 1년간 받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친 금액을 의미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인상을 바라보는 시·도민들의 반응은 사늘하기만 하다. 경기 불황 속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경제는 외면한 채 제 밥그릇챙기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전국 228개 지방의회 의원 1천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자치발전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소선거구제 환원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회, 각 정당에 전달하기로 했다.

<편집국>

금강회초밥 대구 최고의 일식 전문점

미식가들 사이에서 대구 대표 정통 일식 전문점으로 인정받고 있다. 뛰어난 맛 때문이다. 11월 현재 금강회초밥에는 일식점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주방장 8명을 포함해 직원수만 무려 23명을 헤아린다. 단연 지역 일식점 중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이다. 금강회초밥을 경영하고 있는 조인호(40대표 역시 일식 경력 15년 이상을 자랑한다. 금강회초밥은 특히 대구에서 드물게 자연산 회 요리도 선보이고 있다. 식도락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봄·여름철에는 청정해역 동해에서 잡은 도다리를, 가을에는 농어, 겨울에는 최고급 자연산 참돔 등을 엄선해 예약 손님에 한해 내놓고 있다. 금강회초밥은 아울러 뱃살(오도로)과 속살(아카미), 옆구릿살(주도로) 등 최고급 참치 회를 주 메뉴로 선보이고 있는 등 대구에서 가장 맛있는 일등급 참치회를 맛볼 수 있는 전문 일식점으로도 명성이 자자하다.

조인호 대표는 “(금강회초밥은) 명실상부한 대구를 대표하는 일식 전문점”이라면서 “음식을 만들 때나 손님을 대할 때 늘 처음과 같은 한결같은 자세, 그리고 변함없는 맛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회코스 요리를 5만원부터, 점심특선은 초밥정식(2만원), 회정식(2만5천원), 대구탕(2만5천원), 우럭탕(2만5천원) 등을 선보이고 있다. 황금네거리 인근의 수성구 황금동 891-9번지에 위치하며, 예약문의는 053-763-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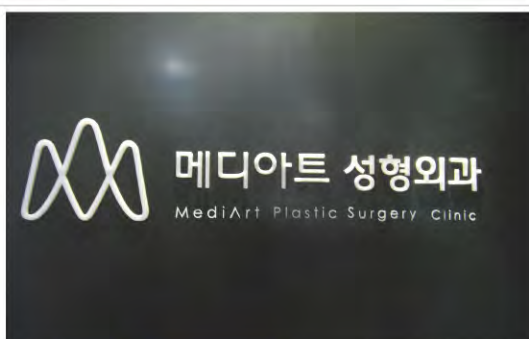
◇ 조인호



메디아트 대구 대표 성형클리닉



◇ 방준배



대구 중구 대봉동 이경빌딩 5층에 위치한 메디아트(Medi Art)는 국내 최초로 시술에 성공한 비절개식 종아리 근육퇴축술에 대한 높은 고객만족도에 힘입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비절개식 종아리 근육퇴축술은 메디아트 방준배(42) 원장이 지난 2003년 개발에 성공하면서 국내 미용성형의료 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기의 비결은 높은 성형 만족도에 있다. 일명 마이크로 근퇴술(micro-NICR)로 통하는 이 성형시술은 종아리 부위에 발달돼 있는 알통근육의 가시부 신경과 함께 통상적으로 시술 시간과하기 쉬운 미세 신경까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마이크로 홀 테크닉을 적용해 시술직후부터 비복근이 사라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메디아트는 아울러 특화분야로 지방흡입 및 이식술에도 독보적인 노하우를 자랑한다. 메디아트의 지방흡입술은 다른 성형클리닉에서는 좀체 접할 수 없는 3-STEP 방식을 도입해 고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시술법을 통해 피부 아래층의 콜라겐을 자극해 피부를 보다 탄력적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Ultra-Z(자용봉)을 이용한 초음파 지방 용해술을 적용해 피부의 미세 부위까지 지방층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고 있다.

방준배 원장은 “아름다움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최고의 시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형 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는 053-621-7582.

경북농가인구 20년새 58만명 이상 감소



탈(脫)농촌, 고령화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의 농가 인구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대구·경북 농촌변화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경북의 농가인구는 58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자 주)

이번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의 농가인구는 5만4천351명을 기록해 지난 1990년과 비교해 20년새 28.6%(2만196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지역의 감소폭은 이보다 훨씬 커, 이 기간 54.2%(58만366명) 급감한 49만1천225명까지 떨어졌다. 대구의 농가인구는 달성군이 1만7천263명(3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구 1만565명(21.0%), 수성구 7천397명(14.7%), 북구 6천213명(12.3%) 등이 뒤를 이었다. 경북의 농가 인구는 경주 4만3천158명(8.8%), 상주 3만8천508명(7.8%), 김천 3만8천59명(7.7%) 순으로 많았다. 지역의 전체 인구 중 대구와 경북의 농가인구 비중은 2.1%와 7.8%를 차지했다. 특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농가 인구 고령화 문제는 노동생산성 저하 등 적잖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의 농가인구 중 고령화 기준인 65세 이

상 인구는 대구가 21.2%, 경북은 35.4%를 각각 차지했다. 경지규모는 0.5ha미만과 3.0ha이상 농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와 경북의 경지면적은 1만382ha로 20년새 18.3% 감소한 가운데 1.0ha미만 농가와 3.0ha이상 농가는 1만4천604가구(86.0%), 313가구(1.8%)로 각각 조사됐다.

이는 20년전인 1990년과 비교해 0.5ha미만 농가는 55.8%, 3.0ha이상 농가는 155% 각각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경북의 경지면적은 21만8천340ha를 기록해 25.8% 감소했고, 농가당 경지면적은 9.6% 늘어난 1.08ha로 확대됐다. 경지규모로 살펴보면 1.0ha미만 농가는 13만2천535가구(65.7%), 3.0ha이상 농가는 1만2천136가구(6.0%)로 나타났다. 이 기간 3.0ha이상 농가는 197.3%나 급증해 전업농 육성 등에 따라 규모의 영농화 바람이 농촌사회에 확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구·경북의 경우 고령화와 탈농촌화 현상이 가중되면서 전업농 규모가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영형태 별로는 논벼와 과수, 채소, 식량자원 순으로 재배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동현 통계전문기자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연구기관입니다.

지난 2001년 설립 이래 최근까지 10여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학술 및 원가계산·검토, 경영컨설팅에 관한 연구용역 3천건 이상을 수행한 공익 학술 연구기관입니다.



TK 경영저널이 membership card 를 발행합니다.



best 경영저널이 만든 프리미엄 카드!

- ✓ TK멤버십카드는 대구·경북경제통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공익차원의 멤버십카드입니다.
- ✓ TK멤버십카드 회원에게는 골프장, 호텔, 테마파크 등 회원사를 이용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 ✓ 경영저널은 회원사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